

【논문】

## 헤겔의 주체: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

—지젝의 헤겔 해석을 중심으로—

성 창 기

【주제분류】 근대독일철학, 주체 이론

【주요어】 헤겔, 지젝, 주체, 정신, 부정적인 것

【요약문】 지젝의 주체 이론은 기존의 상징적 질서와 단절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체는 공백, 배제, 결여, 상실, 분열, 찢어짐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그의 글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사실상 기존의 지배 질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주체의 역량을 의미한다. 지젝이 자신의 주체 이론에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써 헤겔을 들 수 있다. 그는 헤겔에 적대적인 오늘날의 이론적 흐름을 거슬러 헤겔 철학을 되살려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으며, 이 점은 주체 이론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일반적 헤겔 해석과 충돌하는 것이기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젝의 해석에 대해 많은 헤겔 해석자들이 가지는 불편함은 무엇보다 단절과 분열을 강조하는 그의 해석이 헤겔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헤겔의 평생의 목표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지젝에 따르면, 헤겔은 무엇보다 근원적 상실과 분열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상실된 것의 회복 불가능성이야말로 헤겔 사유의 핵심이며, 근본적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헤겔이 말하는 ‘절대지’에 해당한다는 지젝의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해석은 과연 분열의 극복, 통일과 화해의 회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헤겔 자신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글은 지젝이 헤겔의 주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근거(典據)로 간주하는 『정신현상학』 「서문」의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와 관련

된 구절들을 검토함으로써 상실의 불가피성과 관련된 지젝의 헤겔 해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헤겔의 주체가, 지젝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친숙한 세계에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낯선 것, 즉 부정적인 것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절과 상실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체 해석이 헤겔이 주장하는 통일 및 화해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 I. 서론

이 글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헤겔의 주체 개념에 대한 지젝(S. Zizek)의 해석의 타당성이다. 지젝의 주체 이론이 그의 전체 사유의 핵심적 주장에 속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많은 이론적 논의들이 주체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편, 당대의 쟁점들과 관련된 실천적 주장들 역시 자신의 주체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반(反)자본주의적 투쟁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실천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그것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도 그의 주체 이론이며, 철학을 비롯한 여러 이론이나 사상들을 끌어들이며 특유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때, 그것의 중심적 원리가 되는 것도 그의 주체 이론이다.

그의 주체 이론의 독특한 점은 다른 주체 이론들의 일반적 양상과는 달리 기존의 상징적 질서와 단절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주체는 공백, 배제, 결여, 상실, 분열, 찢어짐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그의 글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사실상 기존의 지배 질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주체의 역량을 의미한다.

자신의 주체 이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젝이 끌어들이는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 중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헤겔 철학-라캉의 정신분석과 더불어-일 것이다. 그는 헤겔에 적대적인

오늘날의 이론적 흐름을 거슬러 헤겔 철학을 되살려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으며, 이 점은 주체 이론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많은 일반적 헤겔 해석과 충돌하는 것이기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젝의 해석에 대해 많은 헤겔 해석자들이 가지는 불편함은 무엇보다 단절과 분열을 강조하는 그의 해석이 헤겔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헤겔이야말로 근대 이후 생겨난 온갖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궁극적 목표로 삼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분열의 극복과 통일의 회복에 대한 헤겔의 주장은 그의 글 도처에서 나타나며, 이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하지만 지젝에 따르면, 헤겔은 무엇보다 근원적 상실과 분열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그의 출세작이라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의 서론에서, 지젝은 지금까지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헤겔’을 보여주는 것을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는데, 그가 말하는 새로운 헤겔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헤겔에게서 차이와 우연성에 대한 가장 강한 긍정을 발견한다. ‘절대지’ 자체는 어떤 근본적인 상실에 대한 인정을 지칭하는 이름에 다름 아니다.!)

또, 그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에서, 헤겔 변증법의 목표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성에 의해 생겨난 상실과 분열을 극복하고, 근원적 합일-베르그손적인 생의 약동(élan vital)과 같은 것으로 상정되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변증법적 접근은 우리가 구체적인 살아있는 총체성의 풍부함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상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1)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2002, 29면. 원저는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이하 지젝에 대한 인용은 지금처럼 한글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되, 번역은 필요한 경우 지젝의 원저를 토대로 수정을 가했다.

하지만, ..... 이와 같은 생각은 변증법적 접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로고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실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 되며, 상실된 것은 한번 상실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를 라깡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실제로부터 상징적인 것을 분리하는 간극은 극복할 수 없다.<sup>2)</sup>

다시 말해, 지젝에 따르면, 헤겔은 삶의 유기적 총체성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철학자이다. 지성에 의해 생겨난 상실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며, 통일은 이와 같은 상실의 불가피성, 근원적 합일로의 복귀가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상실된 것의 회복 불가능성이야말로 헤겔 사유의 핵심이며, 근본적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헤겔이 말하는 ‘절대지’에 해당한다는 지젝의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해석은 과연 분열의 극복, 통일의 회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헤겔 자신의 주장과 부합될 수 있을까?

지젝이 헤겔을 상실과 분열을 옹호하는 철학자로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겔의 주체 개념이다. 지젝에 따르면, 헤겔의 주체는 라깡이 제시한 정신분석적 주체와 유사한 근원적 단절의 능력을 가진 주체이며, 지젝은 이러한 헤겔의 주체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헤겔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헤겔에 대한 지젝의 새로운 독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헤겔에 대한 지젝의 언급은 거의 언제나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은 헤겔의 주체 개념에 대한 지젝의 주장을 검토함으로써 상실의 불가피성과 관련된 지젝의 헤겔 해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이며, 이 글은 지젝이 헤겔의 주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전거(典據)로 간주하는 것에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신현상학』 「서문

2) 슬라보예 지젝,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박정수 옮김, 인간사랑, 2004, 361면. 원저는 Slavoj Žižek,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2<sup>nd</sup> edition, Verso, 2002. (이하 이 책은 『그들은』으로 약칭.)

(Vorrede)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Verweilen bei das Negative, Tarrying with the Negative)”와 관련된 구절들로서, 지젝이 이 구절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신분석의 용어를 사용하면, 이 구절은 그의 ‘반복 충동’을 보여준다고 할 만한데, 그는 이 구절을 헤겔 사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이 구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심지어 이 구절을 자신이 쓴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sup>3)</sup>

하지만 으레 그렇듯이 지젝의 설명은 난해한 헤겔의 글에 대한 해설로서는 너무나 불친절하며,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 글은 헤겔 자신의 텍스트로 돌아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지젝의 주장처럼 헤겔의 주체가 근본적 단절을 옹호하는 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헤겔의 글이 가지고 있는 난해성을 극복하기 위해 헤겔의 다른 저서인 『정신철학』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 II. 헤겔의 주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신현상학』의 긴 「서문」은 책을 출간하면서 가지는 저자의 개인적 소회나 의례적인 인사말이 이어지는 보통의 다른 서문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 「서문」은 『정신현상학』뿐만 아니라

3) 지젝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들로는, 『그들은』, 361면,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05, 56-57면(원저는 Slavoj Zizek, *The Ticklish Subject*, Verso, 1999.),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할리우드의 정신 분석』, 주은우 옮김, 한나래, 1997, 109면(원저는 Slavoj Zizek, *Enjoy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 Routledge, 1992.) 등 참조. 그는 자신이 쓴 “거의 모든 책에서 ... 이 구절들을 반복해서 참조한” 바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까다로운 주체』, 58면 주) 36 참조. 또, 그는 이 구절을 자신의 저서의 제목으로 차용하기도 했다.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무르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07(원저는 Slavoj Zizek, *Tarrying with the Negative: Kant, Hegel,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Duke UP, 1993).

자신의 철학 전체에 대한 헤겔의 개관이 담긴 글로서, 헤겔은 이곳에서 철학과 학문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 구상을 대담하면서도 압축적인 필치로 서술해 나간다. 문제가 되는 서른두 번째 단락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분석적으로 나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해당 부분 전체를 인용한다.

그럼에도 본질적 계기는 이 분리된 것, 즉 비현실적인 것 자체이다. 왜냐하면 오직 구체적인 것이 분리되어 비현실적인 것이 됨으로써만 분리된 것은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의 활동은 가장 놀랍고 위대한, 아니 차라리 절대적 위력인 지성의 힘이자 노동이다. 자신 안에 닫혀 정지해 있으며, 자신의 계기들을 지니고 있는 실체로서의 원환은 직접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그 어떤 경이로움도 일으키지 않는 관계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위와 분리된 우유(偶有)적인 것(Akzidentelle) 자체, 묶여있으면서 오직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현실적인 것이 자신만의 현존재 및 분리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의 엄청난 위력이다. 이것은 사고 즉 순수한 나의 에너지이다. 죽음—앞에서 말한 비현실성을 이와 같이 부르고자 한다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며, 죽은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힘이 필요하다. 힘없는 아름다움은 지성을 혐오한다. 왜냐하면 지성은 그 힘없는 아름다움—인용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회피하며 황폐함으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생명은 정신의 생명이 아니다. 정신의 생명은 죽음을 감내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생명이다. 정신은 절대적 찢겨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자신의 진리를 획득한다. 차라리 정신은 부정적인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에 머무를 때에만 이러한 위력으로 된다. 이러한 머무름이야말로 부정적인 것을 존재로 전환시키는 마술적 힘이다. —바로 이 마술적 힘이 앞에서 주체라고 불렀던 것이다.<sup>4)</sup>

먼저, 이 긴 인용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보자. 여기서 헤겔은 자신에게 주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차라리 정신은 부정적인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에 머무를 때에

4)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3, Frankfurt: Suhrkamp, 1970), 35-6면. (이하 PG로 약칭.)

만 이러한 위력으로 된다. 이러한 머무름이야말로 부정적인 것을 존재로 전환시키는 마술적 힘이다. -바로 이 마술적 힘이 앞에서 주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앞에서”라는 수식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겔은 이를 통해 지금의 주체가 앞에서도 언급되고 논의된 적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선 어느 곳에서 헤겔은 주체에 대해 논의하는가? 그것은 바로 「서문」 열일곱 번째 단락인데, 이곳에서 헤겔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주장을 내놓는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실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체로도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PG, 22-3면)

참된 것은 실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체이기도 하다. 이 말은 방대하고도 난해한 것으로 유명한 헤겔의 사유 전체를 단적으로 압축한 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 사실이 그러하다. 이처럼 중요한 주장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앞의 긴 인용문의 내용 또한 사소한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석자들에 의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저 헤겔의 여러 개별적 주장들 중 하나가 아니라 헤겔 철학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 통찰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구절들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은 지적의 공적이라 할 만하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서 헤겔은 자신의 주체에 대한 하나의 정의라 할만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주체는 “부정적인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에 머무를 때에만” 발휘되는 정신의 마술적 힘이다. 즉, 주체는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한에서의 정신’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정의는 그 자체로는 주체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피(被)정의항(‘주체’)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항(‘부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한에서의 정신’)의 내용 자체가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헤겔이 말

하는 ‘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들이 각각 담고 있는 구체적인 함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체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이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헤겔적 주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의항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III. 헤겔의 정신

먼저, 정신에 대해 살펴보자. 헤겔에게 ‘정신’이란 무슨 의미인가? 헤겔은 자신의 학적 체계의 제3부에 해당하는 『정신철학』<sup>5)</sup>—특히 「서론」에 나오는 「정신의 개념」(§§381-4)이라 명명된 부분—에서 정신 일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헤겔의 논의는 모든 규정성이 대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작된다.

모든 규정성은 ..... 오직 어떤 다른 규정성에 대립될 때에만 규정성이다.<sup>6)</sup>

규정성은 규정의 결과로 어떤 것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대립되는 규정성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즉, 어떤 것(‘A’)은 다른 어떤 것(‘-A’)과 대립됨으로써만 어떤 것(‘A’)일 수 있다.<sup>7)</sup> 다른 모든 규정성

5)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철학』, 박병기, 박구용 옮김,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0. 원저는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 im Grundrisse: Dritter Teil Die Philosophie des Geistes Mit den mündlichen Zusätzen*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0, Frankfurt: Suhrkamp, 1970). (이하 이 책의 인용은 한글판을 기준으로 하되, 번역은 필요한 경우 원문을 토대로 수정을 가했다.)

6) 헤겔, 같은 책, § 381 <보충>, 22면.

7) 헤겔에게 있어 ‘규정’(Bestimmung)은 무규정적인 것(das Unbestimmte)을 규정적인 것(das Bestimmte)으로 바꾸는 일(‘X → A’)을 말한다. 그런데 무규정적인 것(‘X’)이 ‘A’로 규정하는 일은 동시에 어떤 것 ‘A’를 A가 아



들과 마찬가지로, 정신 또한 대립되는 규정성이 없다면 규정될 수 없다. 정신의 대립물은 자연이다.

우선 자연의 규정성이 정신 일반의 규정성에 대립해 있다. 그러므로 정신의 규정성은 동시에 오직 자연의 규정성과 함께할 때에만 파악될 수 있다.<sup>8)</sup>

즉, 여기서 정신은 자연과 대립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감각이나 의식, 사고나 의지 등등, 더 나아가 객관정신(한 사회의 법·제도·문화 등)과 절대정신(예술·종교·철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up>9)</sup>

닌 것(-A)과 구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어떤 것을 ‘책’으로 규정하는 일은 동시에 ‘책’을 ‘책 아닌 것’과 구별하는 일이 된다. 이때 규정성은 ‘A’와 ‘-A’를 구별하는 울타리 내지 경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8) 같은 곳.

9) 헤겔의 글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의미의 포괄 범위를 고정하지 않고, 그 의미를 경우에 따라 넓은 의미로도, 또 좁은 의미로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개념의 정확한 내포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며, 언제나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정신’ 개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경우, ‘정신’은 본문의 설명처럼 사용되지만, 헤겔의 다른 글이나 강의에서는 이보다 더 넓게 사용된 경우도 있으며, 또 더 좁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헤겔의 정신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의 철학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헤겔의 철학 체계는 크게 ‘논리학/자연철학/정신철학’의 3부로 이루어지며, 이들 각각을 포괄하는 개념은 ‘(논리적) 이념/자연/정신’이 된다. 위에서 서술된 ‘정신’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A. 이념-

B. 자연-

C. 정신- a. 주관 정신 - 영혼

- 의식

- 정신

b. 객관 정신 - 추상법

- 도덕성

- 인륜성

c. 절대 정신 - 예술

- 종교

- 철학

지금의 세분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헤겔은 정신을 다시 ‘주관 정신’,

그렇다면 정신을 자연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의 규정성, 즉 정신의 종차는 무엇인가? 헤겔은 그것이 ‘관념성’(Idealität)이라고 주장한다.

관념성(Idealität).....이 정신 개념을 구별해 주는 규정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sup>10)</sup>

헤겔은 관념성에 대해 『정신철학』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외적인 것의 지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의 개념에 속하는 이러한 외적인 것의 지양을 정신의 관념성이라 불렀다. 정신의 모든 활동은 외적인 것을 정신 자체인 내면성으로 되돌리는 다양한 방식의 소급(Zurückführung)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귀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 외적인 것을 관념화 내지 동화(同化)함으로써만 정신은 참으로 정신이 되며, 또 정신으로 존립한다.<sup>11)</sup>

다시 말해, 관념성은 외적인 수동적 대상을 정신의 내적 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사물의 외재성을 박탈하는 정신의 능동적 본성을 말한다. 그것은 그 어떤 것이든 외부의 대상을 정신 자신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정신의 근본적 특성이다. 외적 대상은 이러한 정신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애초의 수동적인 것에서 그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 즉 정신에 속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헤겔은 ‘관념화’(Idealisierung)라고 부른다.<sup>12)</sup>

---

‘객관 정신’, ‘절대 정신’으로 분류하고, 이 중 주관 정신의 세 번째 형태, 즉 영혼 및 의식과 구별되는 주관 정신의 한 형태 또한 ‘정신’으로 명명하고 있다(이것이 가장 좁은 의미의 정신이다). 하지만, 헤겔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 이념까지 모두 포괄하여 ‘정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이러한 ‘정신’은 사실상 그의 철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헤겔에게는 모든 것이 정신이며, 정신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같은 책, §381 <보충>, 30-1면 참조.

10) 같은 책, §381 <보충>, 22면. 반대로, 자연의 근본적 특성은 ‘자기 바깥에서 존재함’(Außersichsein)이다.

11) 같은 책, §381 <보충>, 26면.

외적인 소재는 이러한 정신의 ‘관념화’ 작용을 통해 자신의 개별화된 자립적 존립을 잃고 정신적 현존재가 된다.<sup>13)</sup>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신은 그 자체로는 아직 정신의 ‘개념’ 내지 ‘가능성’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때의 정신은 아직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낱 잠재적인 능력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신의 힘은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헤겔에 따르면, 정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만남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타자와 만나 타자를 ‘지양’하지 못하면, 정신은 사실상 정신이 될 수 없다.<sup>14)</sup>

12) “... 정신은 자연의 외재성을 부정하고, 자연을 동화하며, 그럼으로써 자연을 관념화한다. ...” 헤겔, 같은 책, §381 <보충>, 29면. 헤겔은 이 과정에서 외적인 소재가 ‘독살’(毒殺, vergiften)되고 ‘변용’(變容, verklären)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외부 대상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동화시키는 정신의 능동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책, §381 <보충>, 27면 참조.

13) 하지만, 헤겔이 외부적 대상을 정신이 수용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해서 헤겔이 주객 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론적 설명은 외적인 경험 관찰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상’이지 참된 서술은 되지 못한다. “... 자연으로부터 정신의 출현이 마치 자연이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것이자 최초의 것이고, 근원적으로 정립하는 것인 데 반해, 정신은 자연에 의해 정립된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파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오히려 자연은 정신에 의해 정립되었고, 정신이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이다.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은 자연의 한낱 결과가 아니라 진실로 그 자신의 결과이다.” “정신이 타자를 통해 매개되어 있는 듯한 가상은 정신 자신에 의해 지양된다.” 그래서 정신은 자신을 매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지양하여, 그것을 자신에 의해서만 존립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은혜를 모르는 절대적 주권(die souveräne Undankbarkeit),” 말하자면 ‘유아독존(唯我獨尊)’의 존재이다. 정신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 이념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헤겔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책, §381, 21면, 그리고 같은 책, §381 <보충>, 30-31면 참조.

나아가, ‘관념화’는 이처럼 수동적 대상에 대한 외적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개별적 사물들을 공통의 원리로 일관지(一以貫之)하는 보다 전개된 또 하나의 측면을 가진다. 이 경우, Idealisierung은 ‘이념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책, §381 <보충>, 27면.

14) “...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는 정신에게 ...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타자와 그것의 지양을 통해 자신이 개념에 따라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was er seinem Begriffe nach sein soll) ...임을 입증하며, 사실상

그렇다면, 여기서 헤겔이 말하는 ‘타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헤겔의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정신은 그 자체로 있는 자신의 추상적 보편, 즉 단순한 자기 관계에서 벗어나, 단순한 나와는 다른 것으로서의 특정한 현실적 차이,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자기 자신 안에 정립한다.<sup>15)</sup>

여기서 그는 정신의 상태를 둘로 구별한다. ‘추상적 보편이며 단순한 자기관계’로서의 정신은 아직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만나지 않은 채로 그저 친숙한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질적인 것이 없이 일관되고 평온한 ‘나만의 세계’(“단순한 자기관계”) 안에 살고 있는 자기몰입적인 정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만 정신일 뿐 현실적이고 참된 정신은 되지 못한다. 정신은 이러한 단순한 자기관계를 깨뜨리는 무언가를 만나 자기 아닌 어떤 것을 자신 안에 정립함으로써만 현실적인 것이 된다. 일관된 나만의 세계를 깨뜨리는 이 이질적인 것을 헤겔은 여기서 ‘타자’라 부른다. 헤겔은 이 타자를 ‘부정적인 것,’ ‘모순,’ ‘분열’ 등으로 부르며, 이것이 정신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한다.<sup>16)</sup> 다시 말해, 이러한 것이 없다면, 정신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참된 정신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논리학이 정신은 모순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것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의식은 통일[하나임]과 분리됨을 포함하며, 따라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sup>17)</sup>

그래서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헤겔의 정신은 타자를 부정하거나 모순을 거부하지 않는다. 헤겔이 보기에, 단순한 자기관계 자체가 아

그러한 것이 된다.” (같은 책, §382 <보충>, 32면.)

15) 같은 책, §382 <보충>, 33면.

16) “타자, 부정적인 것, 모순 혹은 분열은 정신의 본성에 속한다.” 같은 곳.

17) 같은 곳.

나라, 단순한 자기관계와 부정적인 것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계기의 모순적 공존이야말로 정신의 본질이다. 정신은 단순한 자기관계를 깨뜨리는 타자로서의 부정적인 것을 외면하는 한, 자신의 참된 모습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타자 자체가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신의 자유는 한낱 타자 밖에서 얻은 자립성이 아니라 타자 안에서 타자로부터 얻어낸 자립성이며, 타자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타자를 극복함으로써 실현된다.<sup>18)</sup>

단순한 자기관계, 평온한 나만의 세계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과 만나 이를 외면하지 않고 이에 정면으로 맞서 이로부터 자립성을 얻어낼 때, 그래서 이 타자를 극복해낼 때, 정신은 자유를 얻는다.

#### IV. 헤겔의 주체 –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

정신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정신철학』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정신현상학』의 인용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럼에도 본질적 계기는 이 분리된 것, 즉 비현실적인 것 자체이다. 왜냐하면 오직 구체적인 것이 분리되어 비현실적인 것이 됨으로써만 분리된 것은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의 활동은 가장 놀랍고 위대한, 아니 차라리 절대적 위력인 지성의 힘이자 노동이다. 자신 안에 닫혀 정지해 있으며, 자신의 계기들을 지니고 있는 실체로서의 원환은 직접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그 어떤 경이로움도 일으키지 않는 관계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위와 분리된 우유(偶有)적인 것(Akzidentelle) 자체, 묶여있으면서 오직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현실적인 것이 자신만의 현존재 및 분리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의 엄청난 위력이다. 이것은 사고 즉 순수한 나의 에너지이다. 죽음—앞에서 말한 비현실성을 이와 같이 부르고자 한다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며, 죽은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힘이 필요하다. 힘없는

18) 같은 책, §382 <보충>, 32면.

아름다움은 지성을 혐오한다. 왜냐하면 지성은 그[힘없는 아름다움-인용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회피하며 황폐함으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생명은 정신의 생명이 아니다.

헤겔은 여기서 그가 “힘없는 아름다움”이라 부른 철학적 입장 내지 태도와 지성적 태도를 대립시킨다. 이 두 태도는 “실체로서의 원환”을 대하는 두 개의 상반된 태도이다. 이 실체로서의 원환은 폐쇄적인 직접성의 세계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경이로움도 줄 수 없는 세계이다. 이 친숙한 세계에 머물고자 하고 이를 고수하고자 할 때 정신은 ‘힘없는 아름다움’이 된다. 반면, 지성-이는 정신의 한 형태이다-은 “구체적인 것,” 즉 현실적이며 친숙한 실체적 삶의 세계를 “분리된 것, 즉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친숙하고 전(前)반성적인-해석학적으로 말한다면 선이해(先理解)된-세계를 파괴하는 “분리의 활동”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죽음”의 활동이다.

이러한 죽음은 “가장 무서운 것이며, 죽은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힘이 필요하다.” 정신이 자신의 생을 전개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친숙한 세계와 결별하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신의 생명은 죽음을 감내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생명이다. 정신은 절대적 찢겨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자신의 진리를 획득한다.<sup>19)</sup>

헤겔이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한에서만 정신은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때, 그는 바로 이처럼 죽음을 감내하고 절대적 찢겨짐을 견뎌내는 정신, 조화롭고 평화로운 안식의 세계를 파괴하는 낮은 것에 대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대면하는 정신의 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 헤겔이 앞의 인용문에서 두 가지의 생명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헤겔에게 있어, “죽음을 회피하며 황폐함으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생명”은 “죽음을 감내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생명”인 정신의 생명이 아니다.

이러한 정신은 마술적 힘을 행사한다. 이 힘이 마술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헤겔은 앞의 긴 인용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체는 자신의 지반 안에 있는 규정성에 현존재를 부여하고, 추상적 직접성 즉 그저 어쨌든 **존재하는** 직접성(nur überhaupt seiende Unmittelbarkeit)을 지양함으로써 참된 실체, 즉 자기 바깥에 매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개 그 자체인 존재 혹은 직접성이 된다.<sup>20)</sup>

죽음을 감내하고 부정적인 것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정신은 자기 안에 있는 규정성을 정신적 현존재로 바꾸어놓는다. 바꿔 말하면, 이는 존재를 정신의 매개활동 밖에 직접적으로 있는 것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의해 매개된 것, 즉 매개된 직접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정신의 힘이 마술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신은 부정적인 것, 즉 어떤 의미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술’의 힘을 행사한다. 정신은 바로 이 마술적 힘을 통해 이전의 친숙한 실체적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제 우리는 헤겔이 ‘부정적인 것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만의 고요한 세계를 깨뜨리는 어떤 낯선 타자와 만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끝까지 고수함을 말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머무름’은 가능성으로서의 정신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현실적 정신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처럼 타자와 대면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는 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정신이 바로 헤겔의 주체이다.

---

20) PG 36면.

## V. 모순과 화해의 변증법

하지만, 분열과 모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헤겔 해석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단절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는 헤겔 철학의 지향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것에 머무름이 헤겔이 말하는 주체의 근본적 의미라면,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모순과 분열이 정신의 근본적 본성이라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헤겔이 통일과 화해를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관과 객관, 존재와 사고, 유한과 무한, 지성과 감성 등의 모든 이분법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헤겔의 평생의 목표였으며, 그의 철학의 궁극적 지향이었다.<sup>21)</sup> 그리고 이 목표는 분열이나 단절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화해와 통일의 철학자인 헤겔의 핵심적 통찰이 어떻게 분열과 단절일 수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겔이 통일을 지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통일의 구체적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생각해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헤겔은 인간의 정신이 개입하기 이전의 자연적인 합일 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인간이 겪는 대립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죽음을 회피하는 ‘힘없는 아름다움’은 지성을 혐오하지만, 그는 그런 ‘힘없는 아름다움’을 경멸한다. 그는 인간의 삶에는 지성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분열의 경험은 인간에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통일과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헤겔은 분열을 초래한 인

21) 청년기 저작인 『차이』 논문의 다음 구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의 생으로부터 통합의 힘이 사라지면서 모든 대립이 그의 생동한 관계와 교호작용을 상실하여 저마다의 자립성을 획득하게 될 때 여기서 철학의 욕구가 생겨난다.” (헤겔, 『피히테와 셸링 철학체계의 차이』, 임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1989, 24면.)



간 정신의 개입 자체가 통일과 화해로 가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의 입장 역시 지양되어야 하며, 정신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통일된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됨은 정신적인 것이며, 복귀의 원리는 사고 안에 있다. 상처를 낸 자가 다시 상처를 치유한다.<sup>22)</sup>

나는 ‘상처를 낸 자가 다시 상처를 치유한다’는 헤겔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모순과 찢겨짐이 정신의 본성인 한, 원초적 통일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화해를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우리가 이 모순을 인정하고 이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끝없는 모순을 정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상태에 도달한다. 우리에게 이미 화해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상실과 분열이 영원함을 깨닫고 그 너머에는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는 순간, 시련과 고통이 끝나는 평화와 안식의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미 화해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해는 모순이 없고 시련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모순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자체이다.

화해는 모순과 함께 하며, 모순 없는 화해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화해와 통일이 성취된 후에도 상실과 분열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화해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른가? 화해를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가? 화해가 일어나면, 언젠가는 모순이 끝날 것이라는 가상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화해는 모순과 찢겨짐 이후에 화해와 안식이 올 것이라는 가상을 포기하는 일이다. 모순의 해결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상이라는 깨달음, 바로 이것이 헤겔이 말하는 화해인 것이다.

22) G.W.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 im Grundrisse: Erster Teil Die Wissenschaft der Logik*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8, Frankfurt: Suhrkamp, 1970), §24 zu.3.

## VI.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정신현상학』 「서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와 관련된 구절들을 독해함으로써 헤겔에게 있어 주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지적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헤겔 자신의 텍스트만으로 의미를 구성해 보고자 했다. 그것은 지적이 이 구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는 했지만, 이 구절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구절을 곧바로 다른 철학들에 대한 논의나 정신분석적 논의와 연결시킴으로써, 이 구절에 대한 많은 해석적 오해를 야기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헤겔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독해를 통해 지적의 불친절한 해석이 얼마나 헤겔 자신의 철학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자 했다. 첫째, 헤겔의 주체는 ‘추상적 보편’ 내지 ‘단순한 자기관계’로서의 정신이 아니다. 이처럼 친숙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기몰입적 정신은 정신의 가능성일 뿐, 현실적이고 참된 정신이 아니다. 가능성으로서의 정신이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의 타자 내지 부정적인 것이 있어야만 한다. 이 부정적인 것을 외면하는 한, 정신은 참되고 현실적인 정신이 될 수 없다. 자신의 타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는 정신이야말로 헤겔이 말하는 주체이며, 헤겔이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둘째, 정신의 모순성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헤겔 철학의 근본적 지향인 통일이나 화해와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헤겔의 통일과 화해 개념에 대한 통념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헤겔의 통일은 근원적 합일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다. 통일은 근원적 합일로의 복귀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분열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와 관련된 지젝의 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는 헤겔 철학이 근본적 분열과 상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의 헤겔 논의 전반에서 근본적이며, 헤겔의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때도,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분리와 단절에 대한 헤겔의 적극적 태도이다.

여기서 헤겔은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의 **지성**을, 자연적으로 한데 속하는 것을 찢어 놓고 분리된 것으로 취급하는 ‘거짓’의 무한한 힘으로서의 지성을 예찬한다. 이는 ... 모든 유기적 통일을 훼손하는 그것의 파괴적 힘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겠는가?<sup>23)</sup>

지젝에 따르면, 헤겔은 유기적 총체성의 상실에 대해 탄식하면서 근원적 합일 혹은 생의 충만함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헤겔 철학은 상징화 이전의 “충만함이 결국 아무 것도 아님”, 다시 말해, “직접성의 상실이 사실상 **상실의 상실**, 즉 고유한 존재론적 일관성이 없는 어떤 것의 상실”<sup>24)</sup>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의 서론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지젝이 보기에 헤겔의 ‘절대지’는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 상실에 대한 인정의 이름이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헤겔의 주체와 라캉의 정신분석적 주체를 연결하고자 하는 지젝의 시도 또한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여기서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간단한 비교와 함께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설명한바, ‘단순한 자기관계’로서의 정신은 아직 자신이 아닌 것을 만나지 않은 자연적 합일 상태의 정신을 말한다. 이때의 정신은 평온하며 친숙한 실체적 생 안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라캉적 대응물은 상상적으로 구성된 정신분석적 의미에서의 ‘현실’(reality)

23) 『까다로운 주체』, 58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들은』, 361면의 다음 구절도 참조. “헤겔은 이 상실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생의 직접적 통일을 ‘추상’—즉 분해—할 수 있는 지성의 엄청난 힘을 예찬한다.”

24) 『그들은』, 362면.

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에 따르면, 이러한 상상적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근원적으로 비밀관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밀관성을 환상을 통해 ‘봉합’함으로써 그 흔적을 감춘다.

하지만 이러한 봉합은 불완전하기에, 언제나 일관성을 깨뜨리는 어떤 것이 현실 안으로 침투한다. 이것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름이 바로 ‘증상’이며, ‘실재의 침입’이다. 그렇다면, 증상에 대한 헤겔적 대응물을 무엇이 될까? 다시 헤겔의 진술을 보자. 앞의 긴 인용문 중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위력으로서의 정신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거나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대해 마무리 짓고 나서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갈 때처럼, 부정적인 것을 외면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 헤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어떤 것—문맥상 인용문의 “어떤 것”은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과 마주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의 중심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상황. 이는 뭔가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친숙한 자신만의 세계를 고수하며, 그것을 외면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신분석적으로 말해 자신의 증상을 회피하며, ‘저항’을 통해 자아를 강화하는 상황에 대한 헤겔식 표현이 될 것이다. 이로써 헤겔의 ‘부정적인 것’은 정신분석에서의 ‘증상’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지성을 혐오하는 ‘힘없는 아름다움’은 끝없이 자신의 증상을 외면하며 자신의 자아 안에 안주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태도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의 빗금친 주체(\$)가 이와 같은 저항을 분쇄하고 증상과 대면함으로써만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헤겔의 주체 또한 친숙함의 세계로부터 결별함으로써 가능하다. 친숙한 세계와의 단절이라는 이 근원적 동일성 속에서 헤겔적 주체는 라캉적 주체와 만난다. 이를 우리는

지젝이 각각 자신의 두 저서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기(‘Tarrying with the Negative’)= 너 자신의 증상을 즐겨라!(‘Enjoy your Symptom!’)”와 같은 방식으로 정식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2. 07. 26.  
심사완료일: 2012. 08. 13.  
계재확정일: 2012. 08. 15.

성창기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

- 슬라보예 지젝,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할리우드의 정신 분석』, 주은우 옮김, 한나래, 1997. (*Enjoy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 Routledge, 1992.)
- \_\_\_\_\_,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2002.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 \_\_\_\_\_,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박정수 옮김, 인간사랑, 2004.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2<sup>nd</sup> edition, Verso, 2002.)
- \_\_\_\_\_,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05. (*The Ticklish Subject*, Verso, 1999.)
- \_\_\_\_\_,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07. (*Tarrying with the Negative: Kant, Hegel,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Duke UP, 1993.)
- 헤겔, 『피히테와 셸링 철학체계의 차이』, 임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1989.
- \_\_\_\_\_, 『정신철학』, 박병기, 박구용 옮김,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0.
-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3, Frankfurt: Suhrkamp, 1970).
-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5, Frankfurt: Suhrkamp, 1970).
- \_\_\_\_\_,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 im Grundrisse: Erster Teil Die Wissenschaft der Logik*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8, Frankfurt: Suhrkamp, 1970).
- \_\_\_\_\_,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 im Grundrisse: Dritter Teil Die Philosoph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0, Frankfurt: Suhrkamp, 1970).

## ABSTRACT

## Hegel’s Subject: “Tarrying with the Negative”

Seong, Chang-Gi

Zizek’s theory of subjectivity emphasizes the ability of the subject to break with the existing symbolic order. This subject, which is called void, exclusion, lack, loss, or division in his writings, means, after all, the power to cut oneself off from the existing dominant order. It is Hegel who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kers supporting Zizek’s theory of subjectivity. Zizek has argued for Hegel’s philosophy, especially for his theory of subjectivity, against the theoretical tendency today, which has been antagonistic to Hegel’s ideas.

His endeavor, however, has been much disputed, because it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common interpretation of Hegel’s philosophy. It was Hegel’s lifelong aim to overcome division and opposition and achieve unity and reconciliation. Nevertheless, according to Zizek, Hegel, above all, is the philosopher who argues for the inevitability of fundamental loss and division. How is his argument to be understood? Is his interpretation compatible with Hegel’s own argument that incessantly emphasizes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the restoration of unity; and if this is the case, then how is it compatible?

This article intends to elucidate how valid Zizek’s interpretation of Hegel regarding the inevitability of loss is, by taking the “Tarrying with the Negative” passages in the Preface of the *Phenomenology of Spirit*, which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erences to

his interpretation of Hegel's subjectivity, into consideration.

My conclusion is that Hegel's subject is, as Žižek interprets, only possible by confronting the other, or the negative within its own familiar world, and that such a claim highlighting the split and loss is compatible with Hegel's unity and reconciliation.

**Keywords:** Hegel, Žižek, subject, spirit, the negative